

국 어

1. 다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음운이 포함된 단어는?

— <보 기> —

- 예사소리이다.
-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이다.

① 기관 ② 항해 ③ 수사 ④ 행정

2. 다음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②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3. 다음 시(가)와 수필(나)에서 공통으로 연상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 이육사, <교목>

(나)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겸양(謙讓)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요.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요.
— 이육사, <계절의 오행>

- ① 謙讓之辭 ② 見利思義
- ③ 捨生取義 ④ 百尺竿頭

4. 다음 <보기>의 시를 읽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땀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서정주, <춘향유문(春香遺文)>

* 도련님: 이몽룡

- ① <보기>의 시는 삶과 죽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 ② ㉠의 ‘나무’는 춘향이 도련님과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의 ‘검은 물’은 춘향이 저승에서 변하게 될 모습으로, 저승에서의 춘향을 가리킨다.
- ④ ㉢의 ‘소나기’는 영원히 춘향과 함께할 것이라 다짐하는 이몽룡의 극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5. 다음 물품의 총 개수는?

- 고등어 열 손
- 북어 두 채
- 김 다섯 톳
- 삼치 두 못
- 조기 세 두름

① 540개 ② 640개 ③ 660개 ④ 720개

6.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 <보 기> —

- ㉠ 가물에 도랑 친다
- ㉡ 까마귀 미역 감듯

① 산만함 ② 성급함 ③ 뒷고생 ④ 헛수고

7. 다음 <공고문>의 ㉠~㉣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 고 문> —

이곳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私有地)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이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에 ㉢접촉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00월 00일 주인백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 ② ㉡: 문장 성분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이곳을’을 ‘이곳에’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③ ㉢: 맥락상 적절하지 못한 단어이므로 ‘저촉(抵觸)’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④ ㉣: 어법에 맞게 ‘삼가해 주시기’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8. 다음 중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안개 속에 수수 잎 꼬이듯: 심술이 사납고 성질이 순순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에 원두한의 탄식: 애써 한 일이 뜻하지 아니한 변으로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을 한탄하는 말
- ㉢ ()에 곡식이 병난다: 한참 낱알이 익어 갈 무렵에 때아닌 ()이 불면 못쓰게 된다는 말

- ① 동풍 ② 태풍 ③ 북풍 ④ 해풍

9. 다음 <보기>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②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③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10. 다음 중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5세기 국어의 모음 ‘ㅐ, ㅑ, ㅓ, ㅕ’ 등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릿값(음가)이 바뀌었다.
- ㉡ 15세기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가’와 ‘이’가 있었지만, 점차 ‘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 ㉢ ‘어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 ㉣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長短)을 표시하였으나, 그 장단(長短)은 점차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었다.
- ㉤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그 의미가 없어졌다.
- ㉥ ‘어여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조그맣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아름답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 어촌의 축복을 빌었다.
- ② 통발을 신던 어부가 차에 받쳐 의식을 잃었다.
- ③ 선장은 승객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짜증 어린 성화를 바쳤다.
- ④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혀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12. 다음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이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 <보 기> —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오만(傲慢) ② 독선(獨善)
- ③ 편견(偏見) ④ 아집(我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15.)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展望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이상학이란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염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몰락이란 근대 이성주의가 더 이상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사유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오타르는 1960년대까지 비판적 사고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구했으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자신이 고안한 ‘표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그것에 ㉣相應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리오타르는 비판적 사고가 권력에 봉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안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밖으로의 표류’를 강조한다. 즉 폐쇄적인 논리 체계 내에서 맴도는 비판과 부정이 그 체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전망을 동반하여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류’인 것이다.

리오타르는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復權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언어, 정치, 경제, 성,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을 욕망의 강도에 따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칸트의 글 제목을 패러디한 글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칸트의 글에 함축된 근대적 전체주의의 ㉥全鰭을 시도한다. 글의 마지막에 그는 “전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라고 하면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을 고한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가 ‘계몽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세기 이후의 근대화는 ‘포스트모던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트모던의 기획은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판의 도구에서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근대적 이성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가치’에 담긴 전체 이념을 기초로 했던 근대적 역사관의 실효성 상실, 전체성과 통일성의 해체, 그에 따른 주체와 역사 그리고 진보 개념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폴란드의 도시

1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오타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폐쇄적인 논리 체계 혹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②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주의의 몰락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 ③ 리오타르는 표현될 수 없는 것, 활성화되지 않았던 차이 등은 이성주의 철학 때문에 표현될 수 없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 ④ 리오타르가 죽었다고 선언한 주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의 주체가 아닌 근대적 이성에 기초한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주체이다.

14. ㉠~㉥ 중 한자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 展望 | ② ㉡ 相應 |
| ③ ㉢ 復權 | ④ ㉤ 全鰭 |

15. ㉠과 ㉡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적 이성애에 포함된 이념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의 변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② ㉡은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이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한 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③ ㉠과 달리 ㉡은 이성적 사유가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과 달리 ㉡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16.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17.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 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데,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 거리 잔상쳐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 뒤뚱 지게목발 따로 놓고, 삽질이며 팽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 쓰기는 더 쓰는데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 도구 부서 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겹주기라……. 뼈빠지게 일한다고 뼈빠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 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 ① 구어체 표현과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4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지양한다.
- ③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타인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등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에 대한 자조와 반성이 나타나 있다.
- ④ 화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녀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별판에 파 놓은 뚝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뚝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뢰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 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중 략]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렸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웁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 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밭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 박지원, <호질(虎叱)>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함.

* 오상(五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 사강(四綱):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

19.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전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 ④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0.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은 인간이 말로는 악을 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많다고 주장한다.
- ② 북곽 선생은 남들의 이목(耳目)을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도망쳤다.
- ③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첨하는 북곽 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북곽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 범에게 목숨을 구걸했다.